

‘물의 부드러움과 여림’... 탐구·의문·은유의 대상

14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발표

세계 79명 작가 참여... 신작 공개에드가 칼렐·구철우·이승애 포함 환경 등 동시대적 고민 예술적 대안 외부 전시공간 커미션·조각 주목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최종 참여 작가 명단이 공개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 등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펼쳐지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참여작가를 6일 최종 확정했다.

이숙경 예술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세계 각지 7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또 40여점 신규 커미션과 신작이 최초로 공개된다. 지난해 9월 1차 참여작가 발표에 이어 이날 최종 발표한 작가군에는 헤라 뷁육타쉬즈얀(Hera Buyuktasciyan), 에드가 칼렐(Edgar Calel), 타우스 마카체바(Taus Makhacheva), 앙헬리카 세레(Angelica Serech)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 작가는 구철우, 홍이현숙, 정재철, 김영재,

이승애 등이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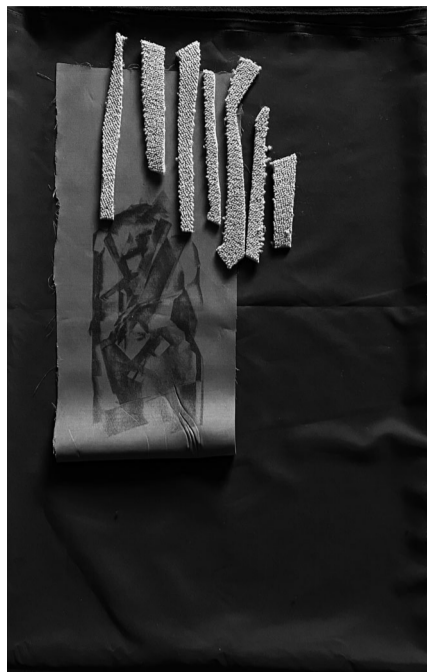
●다양한 해석 담은 신작 ‘눈길’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탐구, 의문, 혹은 은유의 대상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신작들의 원천이 됐다.

수년간 해안도시의 생태적, 역사적, 산업적 현실을 기록하기 위해 물 주변이나 수면 아래서 소리를 녹음해온 타렉 아투이(Tarek Atoui)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한국의 지역 장인, 음악가들과 협력해 제작한 악기와 사운드 오브제 설치를 선보인다.

요코하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고이즈미 메이로(Meiro Koizumi)는 5채널 영상 신작 ‘삶의 극장(Theater of life)’(2023)을 통해 광주 내 소외된 공동체에 주목한다. 특히 작가는 1930년대 조셉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조선족 사람들 ‘고려인’의 역사를 추적한다.

태국 방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감독 타이키 삭피시(Taiki Sakpisit)의 ‘스피릿 레벨(The Spirit Level)’(2023)은 물의 정치성을 탐구하기 위해 메콩강 주변 주민들의 인생, 꿈, 그리고 기억을 기록한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이승애는 대규모 애니메이션과 벽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작업은 진도 지역에서 망자의 닳은 기리기 위한 의례로



헤라 뷁육타쉬즈얀 작 ‘속세에서 속삭이는 자들’/2023.

전해 내려오는 ‘씻김굿’을 모티브로 한 벽화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다.

●기존 작업 확대 신작 ‘다체’

수많은 구조적 결점을 드러낸 전지구적 팬데믹 상황에서 기획된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예술적 탐구와 지역사회 구축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기존 미술계의 구조를 재고한다.

홍이현숙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신작을 통해 인간과 자연, 무생물의 공

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한다. 신작 ‘지금 당신이 만지는 것-월출산 시루봉(What You Are Touching Now - Wolchulsan Sirubong)’(2023)은 영암 월출산의 암벽을 등반하는 작가의 여정을 기술한다.

장지아의 청사진 시리즈는 여성 신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금지된 관습과 암묵적으로 수용된 관습 체계를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세번째 시리즈 ‘아름다운 도구들3(브레이킹 휠)’(2014)은 새로운 단계로 진전되는 작가의 개념적 여정을 담아낸다. 과테말라 산후안 코말라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카치켈족 작가 에드가 칼렐(Edgar Calel)의 신규 커미션 작업은 어린 시절 본인의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의 기억을 추적하는 드로잉이다. 에드가 칼렐은 마야 원주민 문화를 탐구하는 작품 세계를 개인적 기억의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외부 전시장·공공 프로그램 ‘풍성’

이번 비엔날레에서 외부 전시 공간은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으로 마련됐으며 모두 무료로 개방된다.

뉴욕의 카날 프로젝트와 공동 커미션을 통해 제작된 캔디스 린(Candice Lin)의 새로운 설치작품은 한국의 전통 분청사기 기법에서 영감을 얻은 도자 조각과 공장 작업대,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

성돼 있다. 그의 작품은 국립광주박물관의 도자 소장품과 함께, 리튬 전지 생산 과정에 담긴 세계화 과정과 발효와 교역을 담은 용기였던 도자 항아리의 역사를 엮어 선보여질 예정이다. 국립광주박물관 정원에서는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소피 피(Shopea Pich)이 일상에서 찾은 알루미늄 집기를 재활용해 백일홍 나무의 형상을 만들어낸 조각 연작 ‘춤(La Danse)’(2022)을 선보인다.

남구 양림동에 있는 예술공간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는 아마존 풍경에 대한 회화적 해석을 담고 있는 비비안 수터(Vivian Suter)의 연작과 도쿄에서 활동하는 작가 모리 유코(Yuko Mohri)가 소설가 한강의 작품 ‘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장소 특정적 사운드 설치 ‘1/0’(2011-2023)가 전시된다.

무각사에서 다야니타 싱(Dayanita Singh), 류젠화(Liu Jianhua), 흐엉 도딘(Huong Dodinh) 등의 작가들이 삶의 순환에 대해 고찰하는 명상적 작업이 전시된다. 지난 10년간 지역 작가들의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개최해온 예술공간 집에서는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사랑과 상실에 대해 반추하는 모습을 그리는 나임 모하이멘(Naem Mohaiemen)의 영상 작업 ‘익사하지 않는 사람들(Jole Dobe Na)’(2020)이 상영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피렌체에서 듣는 가야금 선율

김소연 가연하비 대표 독주 8일 이탈리아서 ‘산조’ 연주

김소연(사진) 가야금 독주회 ‘산조’가 오는 8일 오후 6시 이탈리아 피렌체의 프란코 제피넬리 기념관에서 진행된다.

6일 김소연 연주자가 속한 가야금 연주단 가연하비에 따르면 김소연은 이날 한국 전통음악 중 민속악을 대표하는 ‘산조’로 세계인의 희로애락을 가야금의 열두 줄 속에 담아낼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오롯이 한국의 전통음악으로 승부를 건다. 김소연 연주자는 ‘산조’를 주제로 가야금산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를 선보인다.

‘김죽파류 가야금산조’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됐으며 뛰어난 형식미(美)에 남도 음악의 중심인

한(恨)을 뛰어넘는 깨끗하고 강인한 선율을 구성했다. 또 남성적 중후함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화려한 기교를 곁들여 유연하고도 신묘한 가락을 완성한 곡이다.

가야금연주자 김소연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사, 원광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다. 또 광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야금연주단 가연하비 대표를 맡고 있으며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의 총무직을 맡고 있다.

김소연가야금연주자는 “가야금산조는 그 고유한 소리로 우리의 희로애락을 표현한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세계인들이 우리 민족의 세계관, 사상, 철학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ACC 해외 예술기관과 공연할 예술단체 공모

국제 공동 창·제작 공연사업 5개 단체에 9억여만원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해외 예술단체와 함께 공연 콘텐츠를 창·제작, 무대에 올릴 단체를 찾는다.

ACC는 ‘2023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은 아시아문화자원을 창작 원천으로 삼아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모사업이다. 아시아의 가치를 세계 속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작품 주제는 ‘도시문화’다. 동시대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 쟁점과 아시아 관련 소재를 다룬 작품도 가능하다.

해외 극장·예술단체와 공동으로 ACC 레퍼토리 작품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공연예술 전문단체면 응모할 수 있다.

ACC는 이번 공모에서 본 공연을 진행할 2개 단체와 시범공연 부문 3개 단체 등 모두 5개 단체를 선정한다.

선발된 단체엔 연구, 교류, 창·제작, 공연 실현 등에 총 9억7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이들 단체는 ACC와의 협력제작 과정에 참여해 작품을 함께 개발하게 된다.

ACC는 1차 서류와 2차 대면 심사를 거

쳐 오는 3월 말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8일까지(본공연 신청단체는 17일까지) e-나라도움(<http://gosims.go.kr>) 공모시스템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공모사업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 국제공동 창·제작 사업을 통해 국내외 예술단체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맺으며 새로운 창·제작 유형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ACC와 새로운 도전을 함께할 역량 있는 공연예술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박서보 예술상 상징물 아이디어 시민 공모

8일까지 광주 주제 아이디어 제출

올해 처음 시상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상징물에 대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기지재단과 함께 제정해 운영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상징물 아이디어 시민 공모를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 참여는 광주의 역사나 문화, 예술적 요소가 깃든 상징물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미를 200자 내로 작성해 제출 (<https://forms.gle/sE9PzGzUYtUSqXG79>)하면 된다.

발표는 2월10일이며, 공모에 선정된 시민에게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5매(성인 1매 기준 1만6000원)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상징물 아이디어 공모는 1994년 창설돼 29년 역사를 지닌 광주비엔날레가 그동안 추구해 온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기획됐다”며 “많은 시민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엔날레는 대한민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화백의 후원으로 지난해 ‘박서보 예술상’을 제정했다.

올해 시작으로 2042년까지 비엔날레 시즌마다 운영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은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작가 1인(팀)에게 상금 10만 달러가 수여된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오는 4월7일 개최된다.

도선인 기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진행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0명 이상이면 누구나 단체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대상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를 제외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17년부터 7년째 운영하고 있다.

1회 10명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연간 250회에 걸쳐 광주 전역에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광주 시 교육지원기관인 (재)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www.gjw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